라오스, 가축류 및 소고기 수출 · 입 막혀

2021년 6월 22일, 하노이지사

□ 키워드 :

○ 라오스 가축류 사육 및 수입 현황

- 라오스에서 가축류 생산은 GDP의 16%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 경제에 중요한 항목이며 주요 가축으로는 가금류, 양돈, 소, 물소, 염소 등이 있고 상업 사육은 가금류 및 양돈에 집중되어 있음

<라오스 주요 가축 사육두수의 변화량>

(단위: 백만 두(수))

구분	연평균 증가율 (%)	2010/11 총두수	2014/15 총 두수	2014/15 목표치	목표율 달성치
가금류	7-8%	26.85	34.63	33.52	127%
양돈	3-5%	2.65	3.04	3.05	99.67%
소	5%	1.52	1.81	1.86	97%
물소	1-2%	1.19	1.21	1.26	96%
염소	4%	0.43	0.53	0.52	102%

* 출처: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: Agriculture Development Strategy to the year 2025 and Vision to 2030, page 16

- 가축 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성 식품 생산량 또한 증가하였음

  * 2010/11년 기준 고기, 생선, 달걀 총 생산량은 약 29만 6,000톤, 2014/15년 기준 약 38만 7,000톤으로 증가

- 라오스 농업개발 전략 ADS 2025에 따르면 2020년 최대 48만 7,500톤(육류 및 달걀 26만 2,500톤, 어류 22만 5,000톤) 생산 2025년 어류 최대 71만 1,000톤 생산(육류 및 달걀 41만 4,000톤, 어류 29만 7,000톤)을 목표로 하고 있음

- 동물 사료 수입량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음. 라오스는 사료 제조 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. 주로 태국산 제품을 배급하며, 베트남, 인도, 중국, 미국에서도 수입하고 있음.

< 5개년도 사료 수입액 (동물 사료에 사용되는 종류의 조제품) - hs code 230990 >

(단위: 천불, 톤)

년도	'16	'17	'18	'19	'20
수입액	28,286	32,867	30,889	37,403	48,577
수입량	18,779	23,077	21,241	26,037	98,993t

* 출처: International Trade Centre.Trade map - 소매용 개・고양이 사료 제외

-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사육 기술 교육 및 전수, 가축류 사육 권장 캠패인 등으로 가축류의 생산성은 계속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나

- 농부들의 가축 질병 및 사육 관련 지식 및 기술 부족, 비위생적인 도축장 및 육류 가공 공장, 축산업을 위한 명확한 정책과 조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발전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

○ 림피 스킨병의 발생으로 가축 및 쇠고기 제품 수출·입 막혀

- 소 피부와 내부 점막에 수많은 혹 덩어리가 생기고, 림프절이 커지는 증상이 관찰되는 심각한 악성 피부병인 '럼피 스킨병'(Lumpy skin disease)이 라오스 전역에 속출하면서 7개 지방, 126개 마을에서 100마리 이상의 소와 버팔로가 폐사했음.

- 지난 4월 처음 보고된 이후, 약 11천 마리의 소가 감염되어 라오스 당국은 일시적으로 가축 및 쇠고기 제품의 수출·입을 금지함

- 특히 라오스 중앙에 위치한 카무나네(Khammouane) 지방에서는 5.1천 마리가 감염되고 그 중 60마리가 폐사하는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음

- 위 질병은 사료 배급 시 또는 타 동물과의 접촉, 파리나 모기와 같은 수혈 곤충을 통해서도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간에게 전염되지는 않음

- 폐사율은 1~5%로 드물게 발생하지만 해당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, 심각한 유량 감소, 수소 불임(일시 또는 영구적), 소가죽 손실 등 큰 경제적 피해가 유발되므로

- 우리나라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, 국제수역사무국(OIE)에서도 관리대상(LIST) 질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

- 라오정부는 백신을 모색하고 있지만, 언제 사태가 진정되어 가축 및 쇠고기 제품의 수출 · 입이 재개될지는 확실치 않은 실정임

럼피스킨병에 걸린 소 (출처: vientiane mai)

○ 시사점

- 라오스의 축산업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나 가족단위의 소규모 방목형 사육이 주를 이루며, 기업형 사육은 소수에 불과하여 현대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했음

- 이러한 이유로 가축들이 각종 질병에 취약한 상황이며 농가 사육 기술 전수 및 위생 교육은 물론, 동물 사료의 개선 및 업데이트, 동물 백신의 생산 및 공급 확대가 요구됨

- 라오스 정부는 민간 부문, 기업가를 대상으로 동물 품종 개량, 사료·백신 및 의약품 생산 및 유통에 활발한 참여를 장려하고 있어 우수한 품질의 한국산 사료 및 축산 의약품의 라오스 진출이 기대되는 시점임

○ 출처:

- https://laotiantimes.com/2021/06/10/lumpy-skin-disease-kills-more-than-100-cattle-in-laos/
- Agriculture Development Strategy to 2025 and Vision to the year 2030 https://www.maf.gov.la/wp-content/uploads/2016/01/MDS-2025-and-Vision-to-2030-Eng.pdf
- 대외경제정책연구원: 라오스의 농업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(김세원,안동환,김태윤 저) 8th FIVE-YEAR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(2016-2020)
- https://laopdr.un.org/sites/default/files/2019-08/2016_8th%20NSEDP_2016-2020_English.pdf